

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5, 전체 도서 조사 구조적 관계

© 2024 David Bauer 및 Ted Hildebrandt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전체 도서 조사 구조적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서 조사의 핵심 기능, 즉 구조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구조에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단위와 하위 단위를 식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실제로 책의 선형적 진행, 책을 기본 단위와 하위 단위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 단위와 하위 단위를 식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조점의 주요 변화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에서, 가정적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1.1부터 3.10까지의 이 가상의 책에서 이 자료를 함께 묶고 설정하는 하나의 주요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에서 벗어납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3.11부터 9.50까지 강조점이 바뀌어 이 첫 번째 주요 강조가 이 자료를 하나로 묶는 두 번째 강조로 대체될 수 있으며 물론 앞선 자료와 다른 자료와도 구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여기 10.1부터 12.14까지에서 세 번째 주요 단위는 뒤따르는 자료와 구별되는 세 번째 강조점에 의해 함께 묶일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강조점의 변화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이 절대적인 배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책의 뒷부분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주요 강조 사항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여기의 가상 예에서는 중단됩니다.

이 첫 번째 주요 강조점은 3.10에서 더 이상 주요 강조점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중에 언급될 수도 있고 안 언급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강조점이 아니므로 이 강조점이 이 자료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면 3.11에서 9.50까지의 강조점의 주요 변화는 이 자료를 함께 묶고 앞서 말한 자료와 뒤따르는 자료 모두에서 벗어나게 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됩니다. 이제 하위 단위에 관해서도 동일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즉, 각 주요 단위 내에서 강조점의 주요 변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에 1.1에서 2.10이 1.1에서 3.10 내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 내에서 여기 1.1에서 2.10에 강조점이 있고 첫 번째 주요 단위 내에서 강조점이 이동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11부터 3.10까지, 그리고 물론 거기에 하위 단위가 표시됩니다. 이것이 주요 단위를 식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 시점에서 일반 자료에 대한 식별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일반 자료가 전기라고 말하면 인물 표현에 중점을 두는 주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 일반 자료를 전기로 식별했다면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인물 표현에서 강조점의 주요 변화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의 주요 인물이 어디에 있는지 자문해 볼 것입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자료를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식별하면 아이디어 표현의 주요 변화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는 일반적인 자료, 예를 들어 지리적 자료를 식별했다면 장소 등의 표현에서 주요 변화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설문 조사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잠정적입니다. 이것은 특히 책에 대한 조사는 일종의 시작이자 책 자체에 대한 일종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절대적으로 결정적이거나 최종적인 관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연구의 장점 중 하나는 자체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구의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서 책 조사 시점에서 수행한 관찰을 수정할 수 있지만 조사의 자체 수정 특성은 실제로 여기에서도 전면에서 나타납니다. 이 시점에 이르렀을 때 나는 나의 일반적인 자료를 전기적이라고 식별했습니다. 이 책이 전기적 노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가 매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쎄요, 비록 제가 제 일반적인 자료를 전기적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 책은 지리적인 선이나 이념적인 선에 따라 더 많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일반 자료의 식별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음, 이제 나는 일반 자료가 전기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지리적인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책은 정말 지리적 분류에 따라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책 내의 주요 단위를 식별하는 두 번째 가능한 방법은 주요 구조적 관계로부터의 함축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주요 구조적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음에서 이러한 관계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말할 내용을 예상해 보면, 예를 들어 책의 주요 구조적 특징 중 하나를 인과관계, 즉 원인에서 결과로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3.10은 3.11~12.14에서 발견된 결과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인과관계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책 내에서 인과관계를 주요 구조적 관계로 둔다면, 원인 제시와 결과 제시 사이에 큰 단절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 구조적 관계의 붕괴 의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책 내에서 강조점의 주요 변화에 따라 1.10에서 3.10, 3.10과 11 사이에서 큰 단절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것을 보고 '글쎄, 1.1부터 3.10까지는 원인이고 3.11 이후는 결과인 것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인과관계를 먼저 볼 수도 있습니다. 1.1부터 3.10까지의 원인에서 3.11의 결과까지, 그 다음에는 그 인과관계가 주요 원인을 암시한다는 인과적 움직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취하세요. 따라서 내가 말했듯이 먼저 강조점의 주요 변화에 기초하여 주요 구분을 확인한 다음, 이 첫 번째 주요 구분과 책의 나머지 부분 사이에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 자문해 보세요. 그런 다음 그 원인,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또는 구조적 관계의 원인을 먼저 볼 수도 있고, 이를 토대로 예를 들어 이 구조적 관계가 존재한다면 여기서 단절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그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강조점의 주요

변화에 따른 분류를 볼 수 있으며, 그런 다음 식별한 주요 단위 사이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혹은 구조적 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장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단위와 하위 단위를 식별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나 목적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관찰을 통해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나 목적을 주의깊게 파악하고 논의하는 모습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해석의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찰하면서 수행하는 이러한 작업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관찰은 해석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주요 단위와 하위 단위를 식별하는 것은 책의 크거나 중요한 부분의 주요 관심이나 초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책이 실제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주요 관심 포인트. 특히 주요 단위, 하위 단위를 식별할 때 수행하려는 작업은 해당 단위에 대한 설명 제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자료를 하나로 묶고 다음 자료와 구분하는 주요 강조점이 있는 경우, 여기에 있는 주요 강조점을 반영하는 설명 제목을 이 주요 단위에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면 실제로 책에서 강조하는 주요 내용을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세 가지 주요 구분이 있는 이 가상의 책에서 이 책은 이것과 이것, 이 주요 강조점, 이 주요 강조점, 이 주요 강조점, 그리고 물론 이들의 상호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책의 전반적인 흐름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작가가 배치, 즉 책 내에서 다른 것과 관련하여 사물을 배치하는 방식을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또 다른 표현은 독자가 선형적

진행을 통해 의미나 이해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논의되고 그 다음에 다른 구절이 뒤따르고 세 번째 구절이 그 뒤에 나온다는 사실, 구절이 그런 종류의 순서로 배치된다는 사실은 작가가 독자의 마음 속에 의미를 구축해야 하는 무기고의 일부입니다. .

하위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읽는 내용은 배치 측면에서 중요하며, 순서대로 이어지는 내용 등의 측면에서 이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책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나 이슈에 주어진 공간의 상대적인 양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형식을 지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별로 고집을 부리지 않지만 책의 주요 단위와 하위 단위를 사용하여 책을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트. 책의 흐름이나 움직임에 대한 시각적 감각을 제공해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규모에 따라 차트를 그리면 지금 말하는 내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작가가 다양한 주제나 문제에 제공하는 공간이나 관심의 상대적인 양, 즉 질량 측면에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작가가 두 번째 주요 강조점에 부여한 상대적인 공간의 양은 첫 번째와 마지막 강조점에 부여한 것보다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공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모든 읽기가 구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청각을 통해 경험하고 접한 책들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그것을 읽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대 근동, 고대 이스라엘, 1세기 그리스-로마 등 고대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인구의 비율을 알지 못합니다. 세계. 문해력 비율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개인의 낭독이라고 해도 말로, 소리내어 읽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개종 이야기입니다. 사도 빌립이 사도가 아니더라도 전도자는 마차를 타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운전기사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 이사야 두루마리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립은 그가 그것을 읽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누가의 부분에 대한 무심코 언급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스스로 책을 읽을 때에도 큰 소리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간에 관해 이야기할 때 공간의 상대적인 양은 차트에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실입니다. 실제로 독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있어서, 그것을 읽는 데 걸린 시간은 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대적인 질량은 우리가 정량적 선택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택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이 실제 책에서 어떻게 보일지 보여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더 언급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모스서에 대한 나의 조사가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내가 맨 위에 제시한 특정 자료, 즉 장 제목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서에서 나는 뒤로 물러서서 광범위한 전반적인 움직임을 감지하고 다시 한 번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손에 들고 본문을 펴서 여기에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1.1에 내가 일반 제목이라고 부르는 일반 항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에는 실제로 일반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이 책 전체의 메시지를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1.3부터 2.16까지는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을 펼쳐 보면 세 가지 범법과 네 가지 범법에 대해 반복되는 공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모스의 이러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이스라엘로부터 상대적으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부터 시작하는데, 각 나라에서 그 나라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고리 중앙에 있는 표적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3.1부터 9.15까지는 초점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은 규모에 맞게 그려집니다. 따라서 양적 선택성 측면에서 볼 때 주어진 공간의 상대적인 양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자비의 선언에 할당된 공간의 3배가 넘는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론 독자가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장문을 읽은 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자비의 선언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독자의 입장에서 순서와 의미 구축 측면에서 독자가 먼저 다양한 국가에 대한 이러한 심판의 장황한 내용을 접하고 다음의 선언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장과 2장에 있는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장황한 내용을 배경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자비가 있습니다. 이제 주요 단위와 하위 단위를 식별하는 추가 이유 또는 목적은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구절이 책의 구성에 맞는 곳. 따라서 예를 들어 2장 6절부터 16장까지는 심판이 있고 그 구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논하고 있지만 1장 3절부터 2장 16절까지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순환의 일부라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중요합니다. 또는 이 책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자비의 선언의 마지막 하위 단위로 끝나고, 그것이 9장 8b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보세요, 요점은 어떤 구절이 책의 계획이나 프로그램에 속하는지 여부가 대체로 그 구절 자체의 의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책 끝 부분에 있는 9.8b부터 15까지의 회복 약속이 있고, 여기가 아니라 처음에 여기 위에 있는 구절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영향과 실제로 이 구절의 의미 측면에서 만들어 낼 차이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그것이 책의 마지막에 나온다는 사실, 즉 책의 결합체를 형성한다는 사실에 의해 크게 결정됩니다. 그것은 유죄와 판결의 선언 뒤에 옵니다. 이 구절 자체가 손상되지 않은 채 책 프로그램의 다른 어딘가에 나타난다면 전혀 다른 의미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단위와 하위 단위를 식별할 때 내가 언급할 마지막 목적은 책의 메시지를 분별하는 데 종종 중요한 책의 전환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책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한 주요 단원의 끝 부분과 다음 단원의 시작 부분에 배치되거나 그 자리에 있는 구절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2장의 끝 부분과 3장의 시작 부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형적 발전, 주요 단위와 하위 단위, 붕괴를 넘어서는 구조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우리가 주요 구조적 관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버헤드의 올바른 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구조적 관계에는 실제로 두 가지 광범위한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을 기본 관계라고 부르고 다른 유형을 보조 관계라고 합니다. 보조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기본 관계와 보조 관계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관계가 기본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만 중요합니다. 주요 구조적 관계를 언급하고 식별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책 조사에서는 주요 관계만 식별하고 싶습니다.

주요 관계는 책 전체 또는 책에 포함된 자료의 절반 이상을 제어하는 관계입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서 조사에서 추구하는 것은 도서의 거시적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부 사항에 얽매이거나 책의 세부 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피하고 오히려 책 조사의 이 시점에서 책의 광범위한 전반적인 움직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얻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에 포함된 자료의 절반 이상을 제어하는 구조적 관계로 관찰을 제한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요한 관계는 아니지만 사소한

관계를 식별하고 전체 책의 구조, 큰 책의 구조를 다루지 않고 책 내의 작은 구절만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창세기의 주요 대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구절에는 대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구절 내에서 대조이지만 주요 구조적 관계는 아닙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큰 대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50장 길이의 책 중 약 2장만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전체 내용의 절반 이상을 다루지 않으므로 실제로 창세기의 거시적 구조를 다루지 않으며, 책을 조사하는 시점에서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급할 첫 번째 주요 관계는 반복의 개념과 관련된 재발의 관계입니다.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어, 문구 또는 기타 요소의 반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책에서 반복되는 예는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증인이나 간증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나는 또한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에 걸쳐 성령, 즉 성령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잠언에 대해 생각해 보면 잠언에 지혜가 반복된다는 점과 또한 잠언에는 그 반대인 어리석음이나 어리석음이 반복된다는 점에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에 나오는 내용은 실제로 대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반복해서 대조합니다.

따라서 책 내에서 또 다른 구조적 관계가 실제로 반복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재발에는 실제로 세 가지가 관련됩니다. 하나는 재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론 빈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용어나 문구, 기타 요소가 비록 다른 구조적 관계이더라도 두 번 이상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발이 주요 구조적 관계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번 나타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재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비록 많이 반복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구조적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재발을 주요 구조적 관계로 갖는 것은 빈도뿐만 아니라 분포도 포함합니다. 즉, 그 사건들이 책의 대부분 전반에 걸쳐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장까지에서 여러분은 그 구절에 여섯 번이나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말한 것을 들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6번의 빈도는 있지만 분포는 없습니다. 그 대조적인 내용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만 나옵니다. 이 내용은 책 전체에 걸쳐 분포하지 않으므로 크게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요 구조적 관계로서 재발에 필요한 세 번째 기준은 중요성이다. 너무 뻘한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에는 and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제 그것은 Mark 전체에서 실제로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찌죠? 그것은 실제로 어떤 무게도 지니지 않으므로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책의 거시적 구조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빈도, 분포, 중요도입니다.

이 책에서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작가는 무언가, 주제, 단어, 문구, 요소가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재발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책에서 반복되는 용어를 열두 번째쯤 발견하면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작가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물론 재발은 책 전반에 걸쳐 발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책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방식으로 해당 주제의 일종의 발전이나 움직임이 실제로 나타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는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사사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판사들에게는 발전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웃니엘과 에훗부터 시작합니다. 이들은 사사기 시리즈의 사사 중 처음 두 명의 사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잘못이 없습니다.

사마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는 둘 중 어느 쪽이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드보라와 바락으로 옮겨가면서 판사들과의 문제와 결함에 대한 약간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드온의 경우에는 더욱 확연해지고, 입다의 경우에는 더욱 확연해집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리즈의 마지막 사사에 도달할 때쯤에는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사사인 삼손이 자신이 구원하도록 파견된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사사기의 반복되는 사사에서 전개, 즉 하향 전개에 의해 암시되는 하향 진행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때때로 책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유형의 관계는 대조의 관계입니다. 대조는 작가가 차이점을 강조하는 사물의 연관성을 포함합니다.

대조의 핵심 용어는 but, or 그러나, 암시적으로 대조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즉, 작가가 명시적으로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작가가 강조하는 차이점이 있는 사물의 연관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대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것들 사이에 그러나 또는 그러나를 놓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은 대조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책에서 대조의 예를 언급했는데, 그것은 잠언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이 반복적으로 대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작가가 여기서 독자에게 권하고 있는 것은 잠시 멈춰서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차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잠언에 제시된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의 완전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원칙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형식 없이는 콘텐츠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이러한 형식, 이러한 대조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요점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이다. 자, 그것은 책 내에서 반복되는 대조의 예입니다. 책 전체 내에서의 일종의 단순한 대조의 관점에서 우리는 아모스서를 인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방금 그 책의 분류 도표를 살펴보았는데, 즉 우리는 책의 대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1:2부터 9:8a까지는 심판과 멸망이 임박했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과 영광이라는 책의 마지막 구절과 대조됩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지배하는 심판(1:2-9:8a)은 9:8b-15의 회복 약속과 대조됩니다. 다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차이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심판, 임박한 심판, 임박한 심판이라는 면에서 그의 백성, 그리고 회복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 궁극적으로 행하실 일과 그 차이를 구별합니다. 이제, 또 다른 유형의 또 다른 예를 여기서 다시 언급했는데, 아모스서에서 하만의 가족이자 실제로 유대인의 적이었던 하만과 에스더, 모르드개 및 유대인 일반 사이의 반복된 대조입니다. , 에스더서에서.

다시 말하지만, 에스더서의 메시지는 이러한 대조와 차이점을 통해 전달됩니다. 에스더서의 의미, 즉 에스더서의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적인 하만과 그의 가족,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에스더, 모르드개, 유대인 사이의 차이점을 의미합니다. 글썬요,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형의 관계는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까. 비교 관계는 작가가 강조한 유사점의 연관성을 포함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서도 예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여러분 앞에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볼 기회가 있거나 그것을 기억한다면, 바울이 독자들에게 대한 기대, 실제로는 그가 독자들에게 주는 권고와 명령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독자와 그들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는 권고를 한 다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여러분이 내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모델처럼 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2:1-11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델은 그 유명한 케노시스 구절, 즉 비우는 구절입니다.

2:19-24의 디모데의 모델, 2:21-30의 에바브로디도의 모델은 실제로 2:25-30이어야 하며 바울의 파심은 실제로 전체를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바울은 독자들이 원하는 것과 행하기를 원하는 것과 비교하여 자신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물론, 자료의 작은 단위 측면에서 비유는 비교의 예가 됩니다.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천국과 비유 이야기 사이의 명확한 비교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는 비교의 핵심 용어가 as 또는 like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핵심 용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용어가 없더라도 작가가 유사성을 강조한 사물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의 관계, 또 다른 관계는 결합의 최고점을 향한 움직임인 절정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서를 예로 들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역사 전반에 걸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투쟁은 실제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볼 수 있으며 결합의 최고점, 즉 다니엘서의 절정에 이릅니다. 12장에서는 의인의 승리와 부활, 그리고 인내하는 자의 영원한 축복에 대해 설명합니다. 물론 절정의 예를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앞서 언급한 대로 40장 시내산 성막에서 야훼를 예배하는 장면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책 전체는 하나님께서 3장에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실제로 행하시는 결합의 최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데려가서 그들이 나를 경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산. 그리고 40장에서는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쉼이나 영광이 성막 위에 내려오며, 백성은 실제로 그곳 시내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그 결합의 최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각 복음서는 절정에 이르고 절정에 따라 구조화됩니다. 그리고 네 복음서가 실제로 각 경우에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절정에 도달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복음서. 마가복음의 절정은 실제로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끝부분에는 부활에 관해 언급된 내용이 비교적 적습니다.

물론, 마가가 기록한 대로 마가복음이 16시 8분에 끝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마가복음이 아닌 소위 마가복음의 긴 결말이다. 이 부분은 마가복음 원본의 일부가 아니지만 아마도 2세기 초에 후대 서기관이 너무 갑작스럽게 끝난 책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가 쓴 책은 적어도 그가 썼다고 가정해야 하기 때문에 16시 8분에 끝나며 실제로 그곳에서는 부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어떤 수단으로든 부활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고, 부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지만, 책의 구조로 볼 때 이 책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 즉 예수님의 죽음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예수.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강조 방식으로 이 책의 궁극적인 절정은 부활의 출현, 즉 예수의 마지막 부활의 출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유일한 부활의 출현과 함께 옵니다. 20.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는 승천에 대한 기사가 없다는 점을 여기서 언급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승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은 승천의 절정, 절정에 이른다. 그러므로 승천은 누가의 생각에 있어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신학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은 부활이라는 정점에 이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부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고 그 끝 부분에 있는 목적 진술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언급되지도 기록되지도 않은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말했듯이 각각의 복음서가 실제로는 십자가와 부활에서 절정에 이르지만 십자가 부활 매트릭스에서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말했듯이 네 가지 복음서의 독특한

관심과 강조점을 나타냅니다. 물론, 클라이맥스가 있을 때, 클라이맥스 구절이 실제로 어떻게 앞선 내용에서 정점에 도달하는지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 책이 여기 이 구절에서 절정에 이른다든 사실이 실제로 책의 앞부분을 조명하는 방식입니다. 책 앞부분의 구절들이 절정의 구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정은 실제로 이전 구절의 의미를 조명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앞의 구절들은 클라이맥스의 의미를 조명합니다. 왜냐하면 클라이맥스는 이전 구절을 구성하고 정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클라이맥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또 다른 관계는 실제로 피벗 장치를 사용하는 결정성의 관계입니다.

이는 실제로 피벗으로 인해 방향이 급격하게 반전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정성에는 급진적인 반전이나 방향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는 중심축, 중심적 통로 또는 사건이 포함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도란 단순히 강조점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반전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피벗 뒤에 오는 것은 실제로 피벗 통로로 인해 피벗 이전의 것을 취소합니다. 이제 에스더서의 예에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모르드개와 유대인을 멸망시키겠다는 결심과 운동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호소하는 5장과 6장의 중심 통로에 도달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호소를 토대로 급진적인 반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이 그들의 원수들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원수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멸망당하기는커녕 실제로 책의 후반부에서 높아지게 됩니다. 모두 이 피벗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급진적인 반전, 즉 피벗 자체로 인해 피벗 이전의 작업을 취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마도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급진적인 반전에서 에스더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제 저는 이 예를 통해 이 구조적 관계를 인식하고 관찰하는 것이 에스더서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더서의 메시지.

에스더서의 주장. 그리고 에스더서의 개별 구절까지도 해석합니다. 에스더서의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에스더서의 어떤 구절을 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 그 구절이 이 중요한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합하고 기여하는지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성에서 그 구절의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그 구절 자체의 의미를 밝혀 줍니까? 이제 에스더의 이 예는 실제로 우리가 긍정적 중요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상황은 나쁘게 시작되었다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예는 물론 발견됩니다. 이 두 번째 예는 실제로 책 내의 주요 관계와 관련이 없지만 책 내의 일부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러나 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구절에서, 특히 창세기 2장과 3장의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그 구절은 순진함, 즉 동산의 즐거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핵심인 금지된 열매를 먹은 아담과 이브의 죄는 무죄, 동산의 향유, 하나님과의 교제, 죄책감, 수치심, 동산에서의 추방, 심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결정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인과관계의 재발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는 때때로 다른 것보다 더 분명하지만 일반적으로 피벗 이전의 자료에서 피벗 통로로 인과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는 운동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의 호소를 불러일으키거나

초래하고 결과를 낳는 에스더의 예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피벗 통로에서 피벗 통로를 따르는 쪽으로 훨씬 더 명확한 인과적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호소한 것이 유대인의 적들을 멸망시키고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좋아요, 관계의 또 다른 유형은 특수화입니다. 이는 실제로 일반에서 특수로의 이동을 포함합니다. 이는 실제로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그 중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데올로기적 또는 논리적 특수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신은 식별적 특수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작가가 제목과 책의 나머지 부분의 본질적인 성격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제목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이것을 얻습니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나훔 1.1에서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괜찮은 예이지만 엘고쉬의 나훔의 환상을 담은 책인 니네베에 관한 신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가 이 책을 환상의 책으로서의 본질적인 성격의 관점에서 묘사하여 나훔 1장 2절부터 이어지는 세부 사항들이 환상의 책의 일반적인 제목에 따라 이해되도록 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 환상이라는 개념은 나훔서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제목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또 다른 예는 솔로몬의 노래일 것입니다. 아가서, 즉 솔로몬의 노래. 그러므로 그 책은 아가라는 총제목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아가서의 일반적인 제목이나 일반적인 성격에 따라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동일시적, 즉 논리적 특수화나 이념적 특수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가가 본질적으로 논제인 일반적인 진술로 시작할 때 이러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아이디어, 주요 주제는 일종의 일반 논제이며,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논제를 전개하거나 풀어냅니다. 이런 종류의

특수화에 대한 좋은 예가 잠언에서 발견됩니다. 잠언 1:7, 그리고 이것은 잠언 전체에 적용됩니다.

나는 적어도 잠언 1장 7절을 일반적인 제목, 일반적인 진술, 즉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구절에서 잠언의 본질적인 주장, 본질적인 의미, 본질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으며, 모든 개별 잠언은 이 일반적인 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풀고, 구체화하고, 발전시키고, 특정화하고, 특별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잠언 1장 7절은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덧붙여서, 나는 그 구절을 잠언의 일반적인 진술로 인식하는 것이 많은 잠언에서 주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개별 잠언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의 세속적인 삶에 관한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1장 7절에 따라 총제목으로 구성된 책 안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주님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잠언에서도 우리가 이 주제를 전개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이제 논리적이고 언급된 것 외에도 여기서 이데올로기적이라고 부르는 것, 즉 동일시적 특수화, 역사적 특수화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작가가 매우 일반적인 용어, 즉 일반적인 성격의 관점에서 역사적 기간이나 역사적 시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 다음, 계속해서 그 역사적 기간이나 역사적 사건을 자세히 전개하는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는 여기에 좋은 예가 시편 105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05편, 특히 5절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에서 내리는 심판을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역사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실제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십시오. 그 역사는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분의 기적과 그분이 말씀하신 심판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시편의 나머지 부분은

105절부터 7절부터 45절까지 이어지는 특정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시편 기자 시대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기술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풀거나 특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시편 105장 5절을 설교하거나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분의 기적들,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신 심판들을 기억하고, 당신은 그 역사의 나머지 세부사항들을 사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7절 이하에 제시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세부 사항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분의 기적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음에 나오는 세부 사항에 비추어 일반적인 진술을 해석하라고 권유하십니다. 반면에, 7절부터 45절까지의 구절, 즉 여기에 언급된 개별 사건을 해석하려면 이 시편의 개별 사건을 7절의 일반적인 설명에 비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5. 이제 지리적 특수화도 가능합니다.

작가가 광범위한 일반적인 지리적 영역을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특정 장소, 그가 시작한 넓은 지리적 영역 내의 특정 장소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 점에 있어서 도움이 되며 이 점에 있어서 좋은 예가 됩니다. 거의 확실하게 창세기 나누기는 11장과 12장 사이의 주요 중단점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우리는 우주 전체, 그리고 적어도 지구 전체를 강조합니다.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 실제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특정 장소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초점은 지구 전체에 있습니다.

그러나 12장부터 50장까지에서는 강조점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온 땅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시고 이제 그분은 초점을 땅에서 땅 위의 한 특정 장소, 즉 가나안 땅으로 좁히거나 특정화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땅, 특히 가나안 땅에 대한 개념이 구약성서, 그리고 확실히 창세기의 언약과 언약신학의 중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이런 식으로 구성함으로써 가나안 땅의 의미가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보아야 함을 지적합니다. 이제 지리적 특수화와 식별, 논리적 특수화를 넘어 역사적 유형을 가질 수도 있고 전기적 특수화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작가가 더 크거나 더 넓은 그룹의 사람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 다음 그 더 큰 그룹의 사람들 내의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하위 그룹에 관심을 집중할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역시 전기적 특정화의 좋은 예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1장부터 12장까지에서 초점이 인류 전체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 특정 인물이 언급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담, 이브, 가인, 아벨, 셋, 그리고 어느 정도 노아.

그러나 그 개인들이 묘사되는 한, 그들은 실제로 대표하며, 그들의 기능은 인류 전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 물론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글썄, 12장에서 그는 그 시점에서 아브람입니다. 따라서 아브람 또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구조의 특정화는 신학적으로 중요한데, 그것이 몇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가족, 특히 이스라엘 백성인 야곱의 가족이 인류 전체와 관련하여 수행해야 할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수행해야 할 독특한 역할, 수행해야 할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과 관련하여 수행할 역할을 가지고 있으므로 언약은 어떤 의미에서 그 자체의 목적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일부인 이스라엘을 향한 것입니다. 언약은 인류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인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목적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가나안 언약의 땅은 온 땅, 즉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화는 특정화와 동일한 두 가지 구성 요소를 역순으로만 포함합니다. 특수화는 일반에서 특수로의 이동을 수반하는 반면, 일반화는 특수에서 일반으로의 이동을 수반합니다. 특정화와 일반화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키고 싶다면 관계의 이름이 맨 나중에 지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특수화는 일반에서 특수로의 이동입니다. 일반화는 특정에서 일반으로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물론 예상할 수 있듯이 특정화와 동일한 특정 유형의 일반화도 있습니다.

동일시 일반화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책의 본질적 성격이 책의 시작 부분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의 노래나 나훔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책의 시작 부분이 아니라 책의 끝. 책의 본질, 책의 본질적 성격이 마지막에 표시되는 동일시 일반화 의 정말 좋은 예는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거의 1322년에 끝납니다. 여기서 저자는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나의 권고의 말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자는 이 책 전체의 본질적인 특징은 헬라어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ὁ λόγος τῆς Παρακλήσεως, 권고의 말씀.

그리고 점점 더 히브리서를 다루는 학자들은 히브리서의 본질적인 성격을 지적하는 측면에서 이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는 주로 권고라는 점입니다. 즉, 그것은 특히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권고, 촉구, 명령과 관련이 있으며, 그리스도에 관한 위대한 신학적 설명, 그리스도에 관한 위대한 신학적 논증,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등은 실제로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존재하며, 그것은 그로부터 성장하고 권면이나 명령의 블록에 의해 제안되는 기독교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책 전체에 걸쳐 기독교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주제, 메시지, 책 전체 메시지의 요약이 책의 시작 부분이 아니라 책의 끝 부분에 있는 일종의 논리적 일반화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사실상 로마서의 마지막 구절, 즉 로마서 16장, 25장부터 26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따라 너희를 능히 능력 있게 하여 주시는 이에게 편지하노니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심을 알게 하려 하신 그 비밀의 계시라 .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물론 그것은 분명히 송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일반적인 진술을 포함하는 송영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로마서의 전체 메시지는 이 하나의 진술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 진술을 풀어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시고 예언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에게 알게 하신 비밀의 계시를 따른 것이라 믿음에 순종하게 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책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실 바로 그 문구가 로마서 1장에도 나오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일종의 괄호가 있으므로 이제 우리가 전기적 일반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리적 일반화뿐만 아니라 창세기와 관련하여 이미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와 관련해서도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5편이 10절의 한 의인에 대한 묘사에서 11절과 12절의 일반적인 의인에 대한 묘사로 옮겨가는 것과 같은 또 다른 예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도행전에는 1장 8절의 말씀에 의해 실제로 암시되는 일반화가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온 땅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지구의 가장 끝 부분. 그래서 당신은 사도행전이 지리적 일반화 측면에서 진행된다는 점, 즉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증거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증거가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됩니다.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에서 누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선포되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한 특정 장소에서 다른 특정 장소로 선포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8장부터 12장까지에서도 증거가 예루살렘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요, 그 다음에는 8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과 그 너머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입니다. 그리고 물론 13장부터 28장까지, 땅 끝까지. 그러나 여기서도 누가는 복음의 증거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그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에서 계속되는 증거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장들에 구두점을 찍는다는 점을 주의 깊게 지적합니다. 사마리아에도 그렇게 하여 증인의 지리적 범위가 참으로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여기서 하고 싶은 주요 주장 중 하나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확장되는 지리적 확장과 이러한 지리적 일반화는 사도행전 전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인식, 이러한 관계에 대한 관찰은 책 전체의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책 내의 개별 구절을 해석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어떤 구절을 해석할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싶을 것입니다. 이 확장된 지리적 증거에서 그것이 어디에 들어맞는가? 그리고 이 책에서 지리적 증거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이 실제로 이 구절 자체의 의미를 어떻게 밝혀 주는가? 이곳은 실제로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기의 한 세그먼트에서 다음 세그먼트로 전환하겠습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전체 도서 조사 구조적 관계입니다.